

“김장 걱정 더세요”... 가을배추 본격 출하·할인 확대

광주 배추 소매가 한달새 64% ↓ 유통업체, 김장철 맞아 할인 행사 이마트, 배추 1포기 1천원대 내놔 무·마늘·굴 등 부재료도 할인 판매

지난 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배추 가격이 폭등해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면서 배춧값이 차츰 안정세를 찾기 시작하고, 유통업체들도 김장철을 맞아 할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광주지역 상품 등급 배추 평균 소매 가격은 포기당 3147원으로 전년 대비 64.55% 하락했다. 폭염 여파로 고랭지 작황이 부진해 지난달 배추 평균 소매 가격이 1만원에 육박했지만, 가을배추 출하를 기점으로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 다만

지난 15일 기준 배춧값은 지난해 2680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17.43% 비쌌다.

이에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김장 배추 등 할인에 나선다.

이마트는 오는 21일까지 김장 주재료 및 부재료를 파격가에 할인하는 ‘김장대전’을 개최한다.

먼저 국내산 배추 1방(3포기)을 행사가 4488원에 판매한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해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정상이 7480원에서 20% 할인, 행사 카드로 전액 결제할 경우 20%를 추가로 할인한 것으로, 배추 한 포기를 1496원에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마트는 작년보다 배추 물량을 15% 더 늘린 30만방(90만 포기)을 준비해 보다 더 많은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추와 함께 필수 김장 채소로 꼽히는 무도 할인한다. 국내산 다발무 1단(5~6

입)을 행사가 4188원에 선보인다. 배추와 마찬가지로 농림축산식품부 연계 20% 할인에 더해 행사카드 결제 시 20% 추가 할인된 가격이다.

‘제주 간마늘(1kg/봉, 국내산)’은 8980원에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대서종’보다 매운 맛이 강하고 마늘 특유의 향이 강해 양념용으로 인기가 높은 ‘남도종’ 마늘을 혜택가에 선보이는 만큼 고객들의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대용량 간쪽파(단, 국내산)’, ‘여수 돌산갓(단, 국내산)’, ‘햇 휴생강(500g/봉, 국내산)’ 등 다양한 김장 채소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또 ‘남해안 봉지굴(250g/봉, 국산)’은 해양수산부와 협업해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 할인된 5586원에 판매한다. 또 수육용으로 좋은 ‘브랜드 돈앞다리/뒷다리/갈비(냉장, 국내산)’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 할인에 준다. 제주 권역은 제외된다.

김장용 가공식품과 김장 용품 또한 다양하게 준비했다. ‘CJ 액젓’ 전 품목을 대상으로 2만원 이상 결제 시 신세계상품권 3000원권을 증정하고, ‘섬들채 명품 천일염(3kg)’과 ‘진정엄마 태양초 고춧가루(1kg)’도 혜택가에 선보인다. 이밖에 김장 매트, 김장 봉투, 고무장갑, 위생 장갑, 스텐 보관 용기 등도 한 번에 알뜰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다.

트레이더스도 18일부터 24일까지 김장 페스티벌을 열고 김장 물가 안정에 동참한다. ‘국산 햇 태양초 고춧가루(1kg)’를 2만980원에, ‘섬들채 천일염(3kg)’을 6980원에 판매하며, ‘국내산 냉장 삼겹살/목심 리테일팩’과 ‘국내산 미박삼겹살 리테일팩(홀)’을 삼성카드 결제 시 각각 5000원, 7000원 할인한다. 그 외에 김치통과 위생 장갑 등도 할인받을 수 있

다.

홈플러스도 20일까지 ‘김장족’과 ‘김포족(김장 포기족)’을 동시에 겨냥한 ‘홈플러스 김장대전’을 실시한다.

홈플러스는 ‘해남배추(통)’를 농축산물 20% 할인 쿠폰에 7대 카드 추가 20% 할인 혜택을 적용해 1992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김장 대전 행사 배추전량을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해남산으로만 선보이며, 이번 행사를 위해 해남산 배추 30만 포기를 사전 확보했다. 반청갓, 고창 다발무, 쪽파, 미나리, 생강 등 김장 필수 채소는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적용해 20% 할인가에 판다.

‘김포족’들을 위한 ‘심플러스(Simplus) 국내산 농산물 100% 포기김치’는 1만5900원, ‘예소담/종가/비비고 김치(6종)’는 2개 이상 구매 시 50% 할인한 1만4900원부터 판매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광주은행, ‘절세요리사 개인형퇴직연금’ 이벤트

문화상품권·신세계상품권 제공

광주은행은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계좌 활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 고객을 대상으로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IRP는 개인이 퇴직금이나 자발적 납입금을 통해 노후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연금계좌로, IRP와 연금저축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지난달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상품을 현금화하는 과정 없이, 기존 투자상품의 실물 형태 그대로 광주은행 IRP 계좌로 이전할 수 있게 되면서 퇴직연금

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발맞춰 광주은행에서 시행하는 ‘절세요리사 IRP 이벤트’는 △개인형 IRP 신규(적립) △추가입금 △퇴직금수령 또는 연금계좌이체 △TDF(Target Date Fund) 판매·운용, 총 네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이벤트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응모되며, 휴대폰 메시지 마케팅 동의 유무 중인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760명에게 킴포즈커피 쿠폰, 배달의민족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또한, 퇴직금수령 및 연금계좌이체 고객 중 이벤트 조건 충족 시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 또는 광주은행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권범 기자



지난 16일 전일호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왼쪽 네 번째)이 류제근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다섯 번째)에게 100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 기부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롯데백화점 광주점, 아동센터에 가전제품 지원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가전제품 교체가 시급한 지역 아동센터에 물품 기부를 통해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6일 광주점 문화센터에서 전일호 광주점장이 류제근 광주시 아동센터연합회장에게 냉장고·에어컨·컴퓨터 등 10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광주점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 중인 가전제품이 낡아 잦은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기부

물품을 정성껏 마련했다.

사랑의 기부 물품은 정다운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등 광주 동구에 소재한 아동센터 8곳에 전해졌다.

전일호 롯데백화점 광주점장은 “지역 아동센터에 가장 필요한 가전제품을 기부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온정을 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광주기업 (주)스쿱, ‘공유형 셔틀’ 정산 시스템 ‘주목’

동강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 수도권 중소기업에 서비스 시작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역대표 참가

동강대학교 창업보육(BI)센터 입주 기업인 (주)스쿱이 출사한 셔틀버스정산 시스템 ‘공유형 셔틀’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기업은 지난 5월 경기도 안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최한 ‘2024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출정식’에서 광주지역 대표기업으로 참가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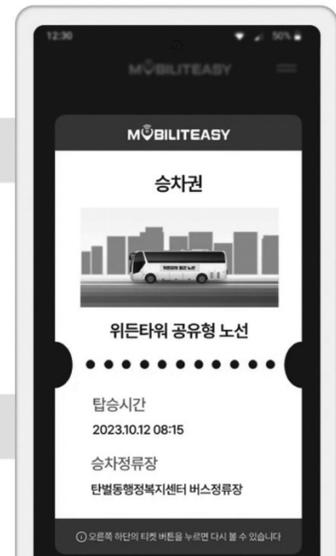
(주)스쿱은 차량 위치 관제 플랫폼인 ‘모빌리티지’ 개발 업체로, 지난해 1월 국내 처음으로 쿠팡 물류센터 통근버스에 ‘태그리스(Tagless)’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다.

(주)스쿱은 올 7월 새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다. 바로 중소기업에 위한 ‘공유형 셔틀’로 셔틀버스를 사용한 만큼 정산하는 시스템이다.

김지환 (주)스쿱 대표는 “수도권은 주차난으로 기업의 통근버스 활용도가 높은

비접촉식 태그

카드와 QR코드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스쿱 위드타워 공유형 셔틀 어플리케이션.

편이다. 특히 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이용하는 임직원 수에 따른 문제와 비용 때문에 통근버스를 운영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 때문에 ‘공유형 셔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주)스쿱의 첫 번째 ‘공유형 셔틀’은 경기도 판교내 ‘위드타워’ 입주 4개 업체가 도입했다.

어플리케이션 ‘위드타워 공유형 셔틀’로 4개 회사의 인증된 임직원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매일 이용률에 따른 정산이 가능하다.

김 대표는 “비용 정산 시 업체별로 나눠야 하는데 탑승객 비율까지 체크가 가능해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서비스다”고 말했다.

또 동강대 BI센터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지역에서 동강대 BI센터를 비롯해 2개 기관에서만 수행하는 ‘2023 BI보육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신기술 및 시스템 기능 업그레이드에 힘써왔다.

올해는 동강대 BI센터가 광주북구, 광주시와 공동 수행하는 ‘2024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특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김 대표는 “창업 기업으로 지자체나 기관 등의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과 안정적인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에 지난달 담양 빛고를 공동체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사회공헌 활동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광주상의·전북경총,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추진

기업-청년 연결 일자리문제 해결

광주상공회의소는 전북경영자총협회와 함께 올해 미래내일 일경험사업 인턴형 8기 사전직무교육을 18일 개시하고 교육을 수료한 지역청년 40여명이 오는 25일부터 10주간 공공기관과 우량 강소기업 등에서 일경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경험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에게 다양한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광주상

의는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 지원센터로 선정돼 양질의 기업을 발굴, 운영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북경총은 전북지역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기업과 청년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주상의에 따르면 전북경총이 추진하는 인턴형 일경험은 15~34세 미취업 청년들이 기업에서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북여성가족재단, 새전북신문, (주)뉴런모터스, 애니젠주, (주)다우환경, 고려정밀주, (주)엠앤케이, 대경제이엠주 등 60여개 공공기관, 강소기업을 통해 다양한 인턴형 일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4주기준(1일 5시간 일경험) 1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참여기업에는 4주기준 1인당 20만원의 기업지원금과, 15만원의 멘토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전북경총은 인턴형 일경험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미래내일 일경험 유형별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지원센터(062-350-5896) 또는 전북경총 사업지원팀(063-902-29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